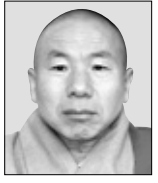


일주문



항적 스님 능인학원 신임 이사장으로 경산 선본사 깃바위 주지 항적 스님은 6월 1일 조계종 종립 능인학원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개소 2주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6월 1일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우울증 예방 캠페인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동포장엔인 복지관 봉제교육실시 서울시립영동포장엔인복지관 관장 지거 스님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27일 '보리공방'을 개소했다. (02)3667-0870~5



김포 난민 지원 자원봉사 협약식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대표 지관 스님은 5월 26일 김포시사회복지관에서 난민돕기 자원봉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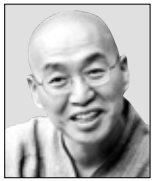
부곡복지관 '반딧불이 허락카페' 개최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 도선 스님은 6월 10일 관내 하늘정원에서 사회복지기금마련 '반딧불이 허락카페'를 개최한다. (031)417-3677



안정사 영산재, 경남 민속예술제 금상 통영 안정사 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승현 스님은 5월 19~20일 거창군에서 열린 제3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011 만해축전 불교학술 심포지움 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용표 교수는 6월 24일 동국대 문학관에서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을 주제로 2011 만해축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2차 백기도 입재식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6월 26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제2차 백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02)587-8990



불교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남마다좋은날 김의정 이사장은 6월 21일 중앙신도회관에서 불교계사회적기업의 창립과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02)733-7277

<이전>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최근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308호에서 같은 동 건물 707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5-4277

인권, 불교가 나서야

조국 서울대 교수,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서 특강



나아가야 한다.

불교는 환경권(環境權)의 제도화 및 보장을 위한 근본철학을 바탕으로 세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차마·머리 길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던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대한민국 인권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세계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196개국 중 70위, 23위 자메이카, 48위 대만, 54위 아프리카보다 못한 우리의 인권, 어디에 있을까?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 주최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조국 교수를 만났다.

조국 교수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인권을 짚었다. 조국 교수는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무지개빛 인권 분류인 청·적·녹·갈색 인권이다. 청색인권은 자유권으로 양심, 사상, 신체, 종교,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적색인권은 노동과 복지를 누릴 권리인 사회권이다. 녹색인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이다. 갈색인권은 문화권이다. 조국 교수는 "불교의 근본 사상의 핵심은 생명과 생태에 있다. 불교의 사부대중이 자신의 위종교의 역할을 다할 때 환경권 보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명박 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된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듯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밤이 공정하게 나눠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불만의 수준을 넘어 짜증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고 봤다.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교육, 청년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이라는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됐고, 정치적 민주화를 추동한

세력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문제에서 오는 대중의 불안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조국 교수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라며 "인권보호는 반드시 일정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그리고 다수자의 개인적 손실이 수반되지만 복지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장을 수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조국 교수는...

1982년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 1992년 최연소 울산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복역, 미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 동국대 교수, 2001년 서울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국가인권위원,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진보집권플랜> 등 다수

포스트 달라이라마 시대 개막

티베트 망명정부 3대 수상 룽상상게



무리한 티베트 망명정부 의회(의장 뽀빠 체링)는 개헌된 헌법 조항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14대 달라이라마(덴진갠초, 76)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지녀왔던 위신과 역할을 3대 수상 룽상상게(43·사진)와 내각이 정식으로 수반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서 티베트 망명정부는 영국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를 모범으로 삼은 의원 내각제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달라이라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위치의 국가 수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 룽상상게가 52년 티베트 망명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것에 대해 티베트인의 체감 현안과 괴리감을 형성치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룽상상게는 2005년에 중국 베이징에 방문해 정식으로 티베트 라사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이후 실제 티베트를 방문한 사례가 없다.

룽상상게는 31일, BBC '집중대담(HARDtalk)'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수행하게 될 정치적 리더는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을 최선으로 받을 것이며,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야기를 배제하고, 티베트 본토의 자주성 확립과 독립을 위한 선봉에 설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사회개혁의 총체적 이념을 불교도의 정신에 비추어 간디의 시민불복종운동에서 보인 정신을 실천에서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 선거는 예비 선거 당시부터 부탄과 네팔의 투표권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인도 달라살라 망명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등 내외적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룽상상게는 오는 8월 공식으로 수상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도 디림살라=기연숙 ormlflower@gmail.com

소신공양 총담 스님 13주기 추모 5일 가평 감로사...지성 스님 법맥 전수식도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5일 중생을 위해 소신공양한 총담 스님의 13주기 추모영산재와 지성 스님의 법맥 전수식을 봉행했다. 총담 스님은 1998년 6월 27일 남북평화통일, 중생제도, 불교 화합 등 3가지 원력을 세우고 한국불교 최초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호명산 도량에서 한국불교사 최초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소신공양으로 화중생연을 피우고 육신등공한 총담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회상의 자리"라고 말했다. (031)584-0117 조동섭 기자

자비의 마음 나눠요

태고종 청련사, 독거노인 조손가정 성금 전달



양주 청련사(안정사 주지 백우)는 5월 26일 대적광전에서 '자비의 마음나누기' 행사를 열고 청련사 대중 스님들과 관음회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과 쌀 400kg을 양주시 장흥면 관내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20여 세대에 전달했다.

청련사는 하왕십리에서 양주로 이전한 후 양주시청에 장학금을 두 차례 전달했으며 7월에 개최할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행사'와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031) 836-0827 노덕현 기자

불교법인연대 설립선포식 개최

불교법인연대 설립선포식 및 호국안민 기원대법회가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강당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불교법인연대(회장 해암 영월)는 선포문에서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불교연대의 협의체 출현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단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되어 이사장 합의



로 통합불교연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대회 '나눔과 희망의 어울림'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상은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이 대표로 수여 받았다. 천진영 기자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김윤수 전 부장판사가 펴낸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역주서!

청량의 소에 의한 대방광불화엄경(I~VII)

알기 쉬운 번역과 상세한 역주로 독자들을 화엄의 정수로 이끌어주는 책!

80권본 화엄경을 한글세대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함은 물론, 화엄경 주석의 백미로 꼽히는 청량장판의 「소초」를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말 번역과 실차난다 한역본을 함께 수록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이치가 깊고 넓은 물론 분량마저 방대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화엄경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최초의 해설서이다.

김윤수 역주 | 전7권 | 총 6,000쪽 | 정가 300,000원 | 한산암

